

# 미네소타 한인회보

## KAAM Newsletter



2022년 | 1호



###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7대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 이용혁>입니다.

한인 여러분의 성원과 먼저 한인회를 이끄셨던 선대 회장님들, 각 계에서 한인회의 발전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한인회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인회를 발전시키고 틀어있는 한인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인회에 가지고 계신 부정적 편견이 있다면 이를 종식시키고, 효율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한인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 한인회의 많은 현안과 바램들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와의 교류, 소통은 물론 차세대들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원과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홍보하여 전세계인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와도 잘 협조, 융합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한인회를 위해 웹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며 발전하고 소통하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교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날마다 행복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박재현>입니다.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한인회의 비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제 어깨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제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고, 제 머리는 최고의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미네소타 한인회는 숭한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이루고 싶어했던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네소타 한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부지런한 이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는 겸손함으로, 타주하고 비교해도 손색없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한인회로 이끌도록 회장님과 함께 리더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교민 여러분, 이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을 바쳐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2022-2023의 미네소타 한인회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네소타 한인회보

발행처 미네소타 한인회  
발행인 이용혁  
편집인 오은아  
주소 1331 County Road D Cir E  
St. Paul, MN 55109  
전화 (651) 440-9192  
이메일 contact@mnkorea.org  
웹사이트 www.mnkorea.org

#### 2022년도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 이용혁  
부회장 김줄리언  
이사장 박재현  
이사 강태문, 김줄리언,  
남세현, 박태준, 박재현,  
이용혁, 황효숙

#### 사무총장 오은아

#### 한인회관 운영회

회장 남세현  
간사 황효숙  
위원 안대식, 윤미자, 황청수

## <Bina의 여섯 개의 사과> 어린이 극단 오리지날 초연 공연

Lloyd Suh가 집필하고 Eric Ting이 감독한 <Bina의 6개의 사과>는 가족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의 부모가 어린 시절 한국 전쟁 중 경험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라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번 공연에 대한 그의 가장 큰 꿈과 도전은 이 연극이 두 세대 모두에게 전달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감정, 상상력, 발견의 감각, 공감을 향한 여정을 그려내었다. 이번 연극은 물론 어린 청중을 위해 쓰여졌지만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공연으로 평가되고 있다.

Bina의 가족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Bina는 단 6개의 소중한 사과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 공연을 통해 Bina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유머러스한 면까지 다양한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사과에 의존해야 하고, 사과와 의미 있는 유산에 의존해야 하는 Bina는 자신의 회복력의 힘을 그로인해 발견하기 시작한다. 종종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Bina가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을 찾는 어려운 여정을 겪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Bina의 여섯개의 사과>는 따뜻하고 영혼이 풍부해지는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잘 녹아있다. Pioneer Press는 <Bina의 여섯개의 사과>는 매우 훌륭한 연극이며 Children's Theatre Company는 이를 매우 훌륭하게 제작했다고 극찬했다. 1950년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지만, 전쟁과 난민이라는 주제는 현재에도 전세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현재 우리 모두는 전염병의 운명을 저주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기 시기에 이 공연의 의미는 더욱 크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Bina의 여섯개의 사과>는 어린이극단과 공동제작으로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상영되었고, 많은 한인 교민들에게도 뜻깊고 감동의 선물이 되어 주었다.

## 한인회 후원금 내역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1일 - 6월10일
한인회비 \$30		전린다, 이창재, 유명숙, 문성인, 윤철호, 이병훈, 우영란, 이순자, 이용혁, 김정은, 오은아, 강태문, 남세현, 박태준, 황효숙, 김줄리언, 박재현
이사회비 \$500		강태문, 남세현, 박태준, 이용혁, 황효숙, 김줄리언, 박재현
찬조금	Up to \$99	전린다, 문성인, 우영란
	\$100	이창재, 유명숙, 홍의환, 김욱현, Seung Choi
	\$200	박명순, 김줄리언
	\$300	이순자
	\$500	안경민, 남세현
	\$1,000	미네소타장로교회, 김권식
	\$2,000+	이용혁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응답하라 2022> 행사 | 미네소타 대학 한인 학생회 주관

2022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미네소타대학 (Great Hall, Coffman Memorial Union)에서 한인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응답하라 2022>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이 날 이용혁 미네소타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학생회장을 비롯해 주최 학생들을 만나 인사도 나누고 한국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려는 행사를 응원하고 감사로 격려하였다. 한국 패션과 음악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방영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에 걸쳐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많은 참가자와 후원자들로 행사장은 가득 메워졌으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자랑스럽고 관객의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는 성공적인 행사였다. 미네소타 한인회는 앞으로도 차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원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용혁 미네소타 한인회장은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삼일절> 기념 온라인 챌린지 | 미네소타 한인회 주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언한 날을 기념한 삼일절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네소타 한인회도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온라인 챌린지를 주최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을 기리는 의미있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순국열사들이 목놓아 외쳤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만세삼창' 챌린지를 각 단체와 기관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용혁 미네소타 한인회장은 Lee's 태권도장을 시작으로 한글학교를 방문하는 등, 만세삼창 챌린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 날을 기억하는 많은 한인들과 역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차세대 한인 청년들에게 커다란 울림의 하루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해 나가는데 큰 힘과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미네소타 한인회는 역사의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나갈 계획이다.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한국CBS 방송강연 | 김권식, EVS 회장

1982년 토목설계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김권식 회장은 EVS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TOP5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아마존 유통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EVS의 작품이다. 또한 EVS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매년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존경받는 재미있는 기업가, 김권식 회장의 기업 성공의 비결이 6월16일자 CBS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다.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성공한 다음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uTube 링크를 통해 김권식 회장의 강연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vhDaU5R9o>



## <어린이날> 야외 행사 | 미네소타 한인복지회 주관

5월 7일 (토) 한인복지센터 주최로 어린이날 행사가 로즈빌에 위치한 센트럴 공원에서 열렸다. 투호,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의 다양한 한국 전통놀이를 비롯해 태권도 시범,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도시락과 스낵을 통해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날 100명이 훌쩍 넘는 참가자, 봉사자, 가족이 모여 모처럼의 대면행사로 미네소타 한인회에서는 행사 후원금도 전달하며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 미네소타 봄맞이 <족구> 최강전

박재현 | 미네소타 족구회장 &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두 달여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준비기간을 마치고 2022년 5월 21일 (토) 대망의 족구 최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교류전 형식으로 한 두 팀 다른 주에서 초대해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팬데믹 이후 족구대회가 다들 고팠는지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시카고 2팀, 애틀란타 2팀, 달라스 1팀, 오렌지 카운티 1팀, 미네소타 3팀, 총 9팀이 최고의 족구팀을 가리는 (준)전국 최강전 같은 느낌의 큰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한 행사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다리에 쥐가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혼신의 힘과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치열했던 경기의 결과로 최강부 우승은 달라스 에이비시 팀, 일반부 우승은 미네소타 쌍두마차 팀이 영광의 트로피를 가져 갔습니다.

비운 뒤에 땅은 더 단단히 굳어 진다고, 대회 준비기간 중 작은 불협화음과 상호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였기에 미네소타 족구협회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즐거운 만찬 및 시상식을 끝으로 밤 10시 쯤이 되어서야 <미네소타 새봄맞이 족구 최강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원섭섭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의 한 켠,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행사 주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참가한 모든 분들이 흐뭇해하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라고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녹는 경험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굉장한 도전이었고,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계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미네소타 족구협회 회원분들과 미네소타 한인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미네소타 족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네소타 <피클볼> 클럽 소개

오은아 | 한인 피클볼 클럽 (KAPS) & 미네소타 한인회 사무총장

피클볼은 미네소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그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공원을 방문하면 테니스 코트보다 더 많은 수의 피클볼 코트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코트 사이즈가 비교적 작고 플라스틱 공에 딱딱한 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은 작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치고마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인 피클볼 클럽인 KAPS는 2019년 여름 몇 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었다가 현재는 20여명의 정규회원과 회원 자녀들까지 합류하여 경기를 치루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기초반을 운영해 피클볼에 대한 인식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년에 수차례 토너먼트 형식의 다양한 경기를 개최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을 만드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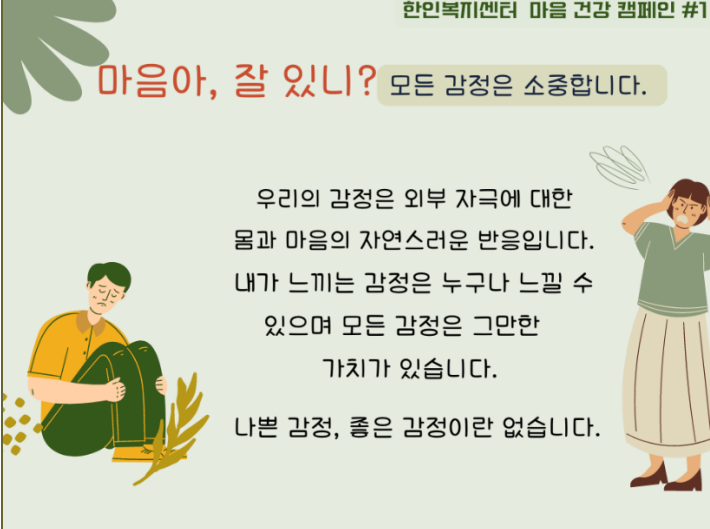
# 미네소타 <정신건강> 캠페인 | 미네소타 한인 복지센터 주관

한인복지센터에서는 미네소타 정신건강의 달 (Minnesota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인 5월을 맞아 미네소타 보건부와 함께 마음건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인복지센터 마음 건강 캠페인 #1

**마음아, 잘 있니?** 모든 감정은 소중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으며 모든 감정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란 없습니다.




한인복지센터 마음 건강 캠페인 #2

**마음아, 잘 있니?**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마음아, 괜찮니?  
행복해!  
짜증 나..  
와가 나..  
부딪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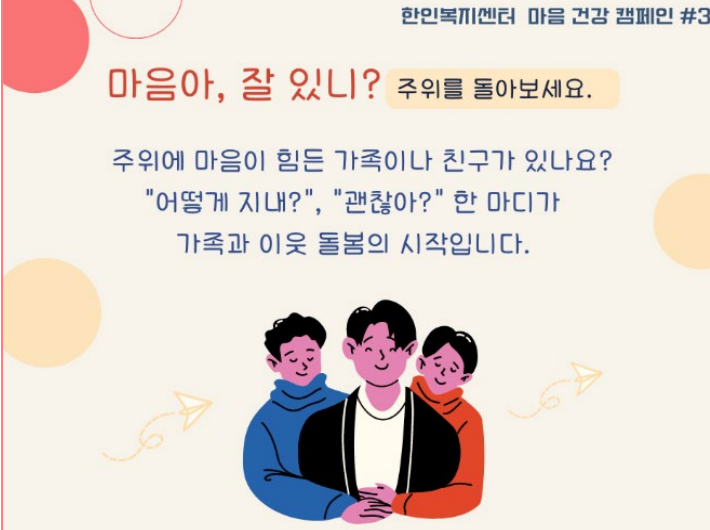
내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많이 알고 표현할수록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인복지센터 마음 건강 캠페인 #3

**마음아, 잘 있니?** 주위를 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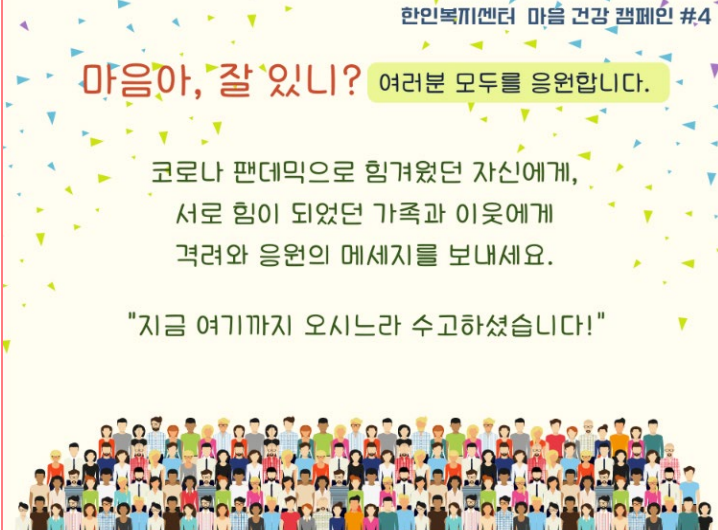
주위에 마음이 힘든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어떻게 지내?", "괜찮아?" 한 마디가 가족과 이웃 돌봄의 시작입니다.




한인복지센터 마음 건강 캠페인 #4

**마음아, 잘 있니?**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웠던 자신에게, 서로 힘이 되었던 가족과 이웃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미네소타 한인회비 및 후원금 “귀하의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	<input type="checkbox"/> 일반 \$30 <input type="checkbox"/> 학생 \$15 <input type="checkbox"/> 이사회비 \$500	한글이름	
	찬조금	\$	영문이름	
	문화회관 건립기금	\$	주소	
	합계	\$	연락처	전화
				이메일

- 수표 납부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651-440-9192, [contact@mnkorea.org](mailto:contact@mnkorea.org)
-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에서 PayPal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 한인회는 IRS 501(c)(3)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이며 납부하신 금액은 세금제공 혜택 영수증을 발행히 드립니다.

## 한국계 미국인 Susie Strom, (미)하원 출마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미) 육군용사, 변호사,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인 Susie Strom이 36A의 미네소타주 하의원에 출마합니다. 그녀는 3개월때부터 미네소타 쿤래피드 지역에서 자랐고, 지금은 노스옥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그녀에게 따뜻한 집이며 고향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지역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남편인 Marcus Strom도 한국계 입양인으로 슬하에 두 자녀, 유진 (4살), 유리 (1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가 미 하원으로 선출된다면 최초의 미네소타 한국입양인이 하의원에 선출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최초의 미네소타 여성 육군 출신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입양인으로서 받은 축복을 사회에 갚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전체 기사를 Korean Quarterly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nquarterly.org](http://koreanquarterly.org)).

Storm 캠페인 웹사이트: [stormformn.com](http://stormformn.com)

## 한국전쟁 72주년 추모 행사 | 송세진 회장, AKUS 미네소타



최근에 창립된 America Korea United Society (AKUS) 미네소타 송세진 회장은 6 월 25 일, 한국전쟁 72 주년 추모행사를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 세인트폴에서 전사자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2000 년도에 대령으로 전역한 송세진 회장은 이 날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미군들, 특히 이곳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미네소타의 군인 94,964 명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라는 개회사로 추모행사를 열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더불어 미국국가와 애국가 1 절이 울려 퍼졌고, 8 개의 기념비에 국화와 화환 헌화식도 있었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묵념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희생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의 행사를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지원해 주어 품격있는 행사로 빛이 났으며, 행사를 지켜보던 미국인 중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전쟁 관련 도서인 <장진호 전투>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는 이도 있었다.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기타 미네소타 지역 행사 및 소식



**이호람 (Brandon Lee), 미 단편영화 <Twisting Tiger>의 주연배우로 캐스팅**  
미네소타 출신 이호람 군이 오스카상의 후보로 오른 작품 <상치와 텐링의 전설>의 연기자 대표로 방송에 출연을 했다. 공동 주연을 맡았던 단편영화 Twisting Tiger는 5월에 개봉을 했으며, 7월부터 촬영 계획인 대작영화에도 출연이 확정되었다.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방문/취재 후 방송, 5/27/2022**

CCX 방송은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해 영어권, 한어권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민세대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보도했다. 아울러 한인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협력하고자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보도하며 귀감이 되는 사례로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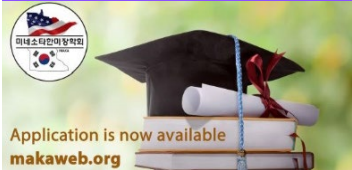
**제37회 장미 무용단 공연, 6/11/2022**

장미 무용단의 무료 공연은 White Bear Lake 고등학교의 북쪽 캠퍼스에서 열렸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다양한 예술품과 도서, 그리고 김밥과 간식들로 풍성했으며, 무료 공연은 오후 1시부터 열렸다. 우리의 문화를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어나가는 귀한 행사였다.



**노년기의 삶을 밝고 건강하게 <치매예방> 특강, 7/8/2022**

미네소타 복지센터에서 김영대 (전)일반 내과의를 모시고 치매 예방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 특강은 7월8일 금요일 오후 2-3시까지 복지센터 미네아폴리스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2023 MAKAWEB 장학금 신청, 신청마감일 9/30/2022**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12학년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의 주역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해 학생당 \$1500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makaweb.org](http://www.makaweb.org)



**2022 영사 순회 업무, 10/14/2022**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미네소타를 방문해 영사 업무를 직접 도와주시는 순회영사 업무가 10월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올해 순회영사는 특별히 방문 전에 반드시 웹사이트([consul.mofa.go.kr](http://consul.mofa.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 미네소타 한글학교 유영란 | 한글학교장

한인회 한글학교는 봄학기과 가을학기 운영되며, 각 학기는 13주간의 학사일정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봄학기(2월 20일 - 5월 22일)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태권도, 그림저널, 한식체험 등의 문화활동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회 이용혁 회장님께서 학기초에 태권도의 기본자세와 자기방어를 알려주셔서 학기내내 학생들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그림저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주 한글학교 생활을 꾸며 13주간의 한글학교 생활을 완성하였습니다. 종강일에는 성인반, 학생반 모두 함께 각자의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부침개와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봄학기를 종강하였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는 8월 28일에 시작하여 12월 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학기는 한글학교 수업 이외에 9월 24일(토요일) 미네소타 소재 한글학교 '가을 소풍'에 참석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소재 타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한글도 배우고,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인회 한글학교 홈페이지 [school.mnkorea.org](http://school.mnkorea.org) 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Creating Champions For Life! 태권도



## Confidence, Self-Control, Discipline & Respect

These are only a few words to describe a Black Belt.

What are your children learning?

Call Today or visit our website for an introductory lesson.



**(651) 766.8083**

**[www.LeesChampion.com](http://www.LeesChampion.com)**

**Lee's Champion Taekwondo Academy**

★★★★★  
5 STAR RATING!

손현수  
Hyounssoo Lathrop



COLDWELL BANKER  
REALTY

부동산 매매 전문

전세계 콜드웰 뱅커  
탑 1% 에이전트



핸드폰: (651) 233.8527

이메일: hlathrop@cbrealty.com

www.HyounssooLathrop.com



CALL HAEWON PARK

박혜원 부동산

612-234-1518

haewon@cbrealty.com

www.haewon.cbintouch.com



COLDWELL BANKER  
REALTY



서울식품 763-572-0079

고객의 기대보다 더 큰 만족을 드리는 마트!

항상 신선하고 수준 높은 상품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7여개의 나라의 2,0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식품 및 식품 관련 용품 판매

1071 E Moore Lake Dr. Fridley, MN 55432



# 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1331 County Road D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mnkorea.org](http://mnkorea.org)



[facebook.com/mnkorea](https://facebook.com/mnkorea)



[kaam47th](https://www.instagram.com/kaam47th)



[contact@mnkorea.org](mailto:contact@mnkorea.org)

## 교민 사회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미네소타 한인회



미네소타 한인회는 (1)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며 (2) 각 한인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고, (3)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협력해야하는 모든 한인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며, (4) 차세대 모임과 화합을 위해 한인 문화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네소타 한인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네소타 한인회도 같은 비전으로 한인사회를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인 단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기를 바랍니다. 미네소타 한인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복지센터> 행사 후원



<미네소타 족구회> 행사 후원



<MAKA 장학재단> 후원